

챕터 2 생각해 볼 거리와 토론주제

1.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정의(Defining the digital humanities)’ 단락에서 Drucker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 이렇게 판지를 걸었다.



드러커曰: “타임라인, 지도,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현재의 인터페이스는 인문학의 질적인 연구 방법론과 양립이 어렵다. 인문학의 데이터는 추상화되어 검색되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context)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 29쪽)

이 주장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지식을 데이터화 하였을 때 기대되는 큰 효용 중 하나는 양적 방법론을 통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등)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론은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면서 새로운 사실과 관계를 드러내주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 한계점도 존재한다. 아래의 글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사례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환호와 기쁨 뒤에는 날로 방대해져서 ‘범람’할 지경인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읽을까가 연구자의 고민거리로 던져진다. ... 이상의 질문들은 새로운 시대에 연구자가 대량의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발견한다.

...

‘원거리 읽기(distant reading)’는 모레티가 대량의 문학 텍스트를 다루기 위해 발명한 방법이다. 그는 전통적 문학연구에서 취하는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와 분석의 방법을 버리고 역사와 지리의 범위를 뛰어넘은 대량 텍스트로 눈을 돌려 그 안의 몇몇 형식 원소들을 추적했다. 그는 이런 처리 방법이 마치 우리가 추상적 이론과 개념을 얻을 때 다채롭고 풍부한 현실세계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텍스트를 ‘소실’시키는 것 역시 지식을 얻으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한다.

...

그의 연구는 텍스트 분석의 규모와 범위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전통적 문학사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고 더 나아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계문학을 하나의 연관된 전체로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방법은 정밀한 독해를 버리고 구조와 어휘에 변수가 많은 문학작품을 균질적이고 평면적인 과학적 소재로 취급함으로써 수많은 텍스트 속의 의미와 미감을 다 뽑아버리고 박탈한다.

-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중에서

사실 김현 교수님은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양적 방법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며 싫어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 1) 일단 인문학에서 다루는 역사적 자료 등은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빅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 2) GIGO: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연구자가 의미 있게 뽑아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빅 데이터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단호)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다.

★ 일단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디지털 인문학에서 양적방법론의 효용과 가치?

그리고 위의 드러커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드러커는 “현재의 인터페이스가 인문학의 질적인 방법론과 양립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질적인 방법론’은 인문학이 가진 고유 의 학문적 특성인 것 같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이 글은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인문학의 특징을 ‘현상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껍게 읽기’는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인문학에서의 글 읽기에 전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클리포드 기어츠의 "두꺼운 묘사 (thick dex-scription)"라는 개념에 힘입은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 접근할 때 자연과학의 입장에서는 사과라는 물체와 관련된 외형적, 객관적 사실들을 묘사한다. 즉, 사과의 원산지, 주요 생산지, 크기, 색깔, 영양가와 같은 것들을 얇게 묘사한다. 묘사한 것을 벗기면 그 밑에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반면 인문학에서는 사과 자체보다는 그것에 담겨있는 여러 의미를 다룬다. 예를 들면 트로이 전쟁의 사과, 뉴턴의 사과, 빌헬름 텔의 사과와 같은 역사적 층위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사과가 파생시키는 의미의 연상작용도 있을 것이다. 외형적으로 사과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은 같을지라도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전혀 다르다.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중에서

드러커는 “인문학의 데이터는 추상화되어 검색되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 (context)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즉, 인문 지식이 데이터화 되었을 때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어 인문학 탐구의 본연적 특성인 깊이 있는 텍스트 분석(두껍게 읽기)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 ★ 두 번째 토론 주제. 드러커의 말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 ★ 드러커의 말에 동의한다면, 데이터화된 인문지식은 아카이빙을 통한 ‘자료에 대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이라는 측면 외에, 실제 (질적인)인문학적 분석과 탐구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일까?
- ★ 디지털 인문학과 전통적인 인문학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대체관계일까 아니면 보완관계일까?

2. ‘디지털 인문학의 특징(Characteristic of Digital Humanities)’단락에서 디지털 인문학 선언에 대해서 나온다.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선언을 읽다보면 디지털 인문학의 정의에 관한 이런 구절이 있다.

not a unified field but an array of convergent practices that explore a universe.
디지털 인문학은 하나로 통합된 분야라기보다는 이러한 세상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은 ‘융합적 실천’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이다. convergent는 사전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한 점으로 모이는’, ‘수렴하는’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영어문장을 그대로 풀면, 디지털 인문학은 여러 학문들이 집합하는 실천의 장이다. 하지만 융합이라는 뜻은 좀 다르다.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물론 최근에 산업적으로 융합(convergence)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영역이 한데 어울리고 섞이는 것을 포괄하여 쓰이는 것 같다.

김현 교수님이 과거 수업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수렴이라고 해야 한다고.

융합은 좀 개별학문의 고유성이나 독립성을 중화하는 것이라면 수렴은 개별 학문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해 모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 두 단어의 개념을 구분한다면, 디지털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것, 추구해야하는 것은 융합일까, 수렴일까?

3.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담론들(Discursive concerns in the digital humanities)' 단락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다양한 비판적 담론들이 나온다. 이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

디지털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 인문학 교수로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학술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인문정보학전공인 우리 과의 연구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들은 이렇다.

Rucker: 디지털 상의 결과물은 지식을 구체화하고 소통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론적인 것이다.

Manovich: 디지털 결과물들은 디지털 인문학에서 이론을 입증하는 프로토타입으로 분류될 수 있다.

Ramsey: 디지털 결과물은 그것들이 사건이나 현상 혹은 인문학적인 질문에 답하는 해석의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디지털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 그런지 책안에는 찬성 의견들만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이런 비판이 나왔고, 어떤 지점이 이 비판의 핵심근거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인문학 전공자라면 여기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의 논리들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각자 생각해 보고 스터디 때 이야기 해 보면 좋을 것 같다.